



“연중 제 30주일”

<http://www.sjkoreancatholic.org/>

[루카 18, 9-14]

2010.10.24.

금주의 강론

[박상대 신부님 강론에서]

바리사이의 기도는 잘못의 통회와 정개도, 자비와 용서를 구함도 없고, 청원도 없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남들이 보라는 듯이 서서 기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세리의 기도를 보자. 세리의 기도하는 자세는 바리사이의 그것과는 아주 극단적인 차이를 보인다. 그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를 시작한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13절) 세리의 기도자세에는 감사의 언급은 없으나 찬양을 드림은 이미 내포되어 있다. 기도의 내용은 짧지만,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말 속에 성찰과 통회와 정개, 그리고 자비와 용서를 구함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무엇보다 자비를 청원하고 있다. 바리사이는 자신을 위해 아무 것도 청하지 않는다. 그가 기도라며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세심하게 지키고 있는 종교적인 실천들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며, 결국 자기 자신에게만 큰 관심을 기울인다. 나아가 다른 사람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큰 실수를 범하고 있다. 그에게 하느님은 오직 자신의 놀라운 공로를 빠짐없이 인정하시는 분일뿐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확실하고 경건한 바리사이파 사람과 비교할 때, 세리는 감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그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뿐이다. 그는 심판관 앞에서 자신의 무고를 증명할 아무 것

도 찾지 못하고 그저 심판만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리는 전적으로 자신을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는 감히 기도할 자격도 없지만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죄인이거나 은총의 선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희망할 뿐이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14절) 이는 예수님의 판결인 동시에 하느님의 판결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정당한 평결이다. 나아가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14절)는 말씀으로 자신의 판결에 대한 기준을 밝혀 주셨다. 그 기준은 곧 겸손이다. 오늘 제1독서의 말씀대로 겸손한 사람의 기도가 구름을 꿰뚫고 하느님께 도달한 것이다.(집회 35,21) 이렇게 겸손한 사람의 청원은 하느님께 즐겨 가납된다. 하느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느님은 즉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다. 하느님의 평결이 바리사이보다 세리의 올바름을 인정했다고 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집으로 돌아간 세리는 여전히 혼돈 상태에 있다. 생활을 바꾸지 않고, 또 거짓으로 속여 착복한 것을 되돌려 주지 않고서는 실제적인 용서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기도는 그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 안에서 실천될 때 그 가치를 지니게 된다.



가족 동정 및 공지 사항

- **성가 연습 변경 ;**
성가 연습; 10월 24일은 성가 연습방 부족 관계로 취소되었던 오후 연습이 계속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단 환영 ;** San Mateo에 거주하시는 김대성 바오로님과 희선 아나다시아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가대에 입단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항상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 김 세실리아 자매님 4박 5일의 여정으로 떠나셨습니다. 금일 오후 연습은 리따 자매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주 예로니모 단장님 내외분 즐거운 여행 마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마태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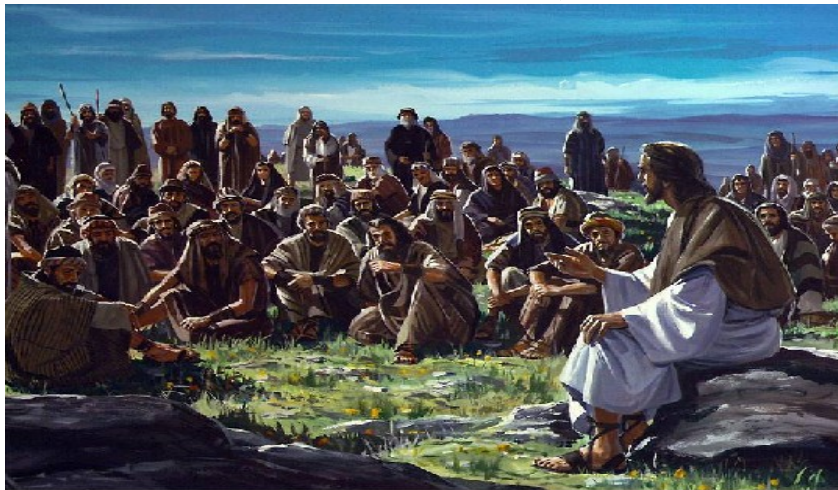


예수께서는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 갔는데 하나는 바리사이와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사이와 사람은 보라는 듯이 서서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

입의 십분의 일을 바칩니다' 하고 기도하였다.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잘 들어라. 하느님께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 간 사람은 바리사이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1분 명상

"겸손은 만물의 미덕" -찰스 칼렘 콜튼 -



선물을 받으면
자꾸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선물을 주었을 때는
아무말도 하지마세요

우울의 늪에 빠진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밝은 웃음입니다

자신을 돋보이려고 기를 쓰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있을 때는 눈에 띄지 않지만
없을 때는 눈에 띄는 사람이 되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사람들을 위한 일인가요
아니면 단지 사랑받기 위한 일인가요?

좋은 친구를 찾기 보다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도와줄 사람을 찾기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understand'라는 것은
아래에 서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아래로 내려갑니다

거만한 사람은 타인과 거리를 둔다.
그런 거리에서 보면 타인이 자신에게는
작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자기 자신도
그들에게 작은 크기로 비춰진다는 것을 잊고 있다.